드라마와 함께 하는 한국어 수업 6강

tvN 코믹가족극

응답하라 1988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386세대도 88만원 세대도 아닌,
그래도 아직은 기성세대로는 불리고 싶지 않은 한 여자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는 1971년생. 마흔다섯의 성덕선.

덕선이 열여덟이던 1988년, 건국 이래 최고의 행사인 '서울 올림픽'이 열렸고
학력고사를 치르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대학에 입학하던 1990년,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시작됐다.
누구에게나 내가 살아온 시대는 특별하기에 그날들을 선명히 기억한다.

월급날 아버지가 사오던 누런 통닭 봉투.
이불 깊숙이 아버지의 밥공기를 넣어 놓던 어머니.
온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보던 '한 지붕 세 가족'
앞집, 옆집, 뒷집 너나없이 나누고 살았던 골목 이웃들을 기억한다.
지나온 추억은 아련히 떠올라 밤잠을 뒤척이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발판이 된다.

<응답하라 1988>은,
우리가 보낸 시간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시절 청춘을 보낸, 그리고 지금의 청춘들에 보내는 위로와 격려다.
현재를 살아가고, 견디며, 잘 지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연가,
계절의 봄처럼 짧았고 청춘처럼 찰나로 지나간 그 시절로의 여행을 떠날 것이다.

tvN 코믹가족극

응답하라 1988 공식 가족관계도

매주 금·토 저녁 7시 50분 tvN

[덕선이네]

[정환이네]

[선우네]

[택이네]

[동룡이네]

"마다가스카르 올림픽不參 섭섭해요"

女高生 피켓걸 劉容信양

『개회식에 나갈수없을것 같아 걱정입니다。하지만 이번 올림픽이 꼭 성공하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할거예요』

올림픽 개회식때 「마다가스카르」의 피켓을 들고 입장하게 되어있던 劉容信양(18·상명여고3년·사진)은 지난5월 예비엔트리를 제출했던 1백61개국중 남북한동시수교국인 「마다가스카르」가 서울올림픽이 남북한공동주최가 아니란 이유로 불참하게되는 유일한 국가가 될것이 확실시되자 무척 서운해했다。

劉양은 내노라하는 미녀들중 7대1의 경쟁을 뚫고 피켓걸에 뽑힌뒤 지난6월부터 거의 날마다 4~5시간씩 음악에 맞춰 입장연습을 계속해왔다。『그동안 학교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 개회식에 나갈수 없게 된다니 정말 서운해요』

그러나 劉양은 피켓걸중 다시 선발된 27명의 시상식요원에 들어 한국의 금메달획득이 유력시되고 있는 레슬링경기장에 설수 있게돼 적지않은 위안이 된다고。

1m65 50kg에 고운 눈웃음을 자랑하는 劉양은 앞으로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고 싶어한다。

사업을 하는 劉鍾夏씨(44)의 1남3녀중 큰딸。

劉양은 올림픽개막 5일전인 12일 낮2시에도 지난 1백여일의 연습때와 다름없이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백60명의 동료피켓걸과 발을 맞춰 입장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趙憲注기자>

1988 vs. 2015 물가 비교
1988년
2015년
100원
634원
6.3배
759원
4,600원
6배
100원
320원
3.2배
558원
4,100원
7.3배
자료:한국물가정보

1988 vs. 2015 물가 비교
은마아파트
1988년 5,000만 원
20배
2015년 9~10억 원
(76㎡ 기준)
자료:한국물가정보